

베스트셀러를 통해 본 國內 社會 意識의 變化

李美淑 記者, 海外文化部
文 化 日 報

90년대 한국 사회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 베스트셀러만큼이나 유용한 자료는 없을 것이다. 먼저 90年代 話題의 책 특징은 이념 도서의 퇴조와 경제 및 미래학 도서의 부상, 밀리언셀러의 등장, 세계 동시 베스트셀러 현상, 대기업 總帥들의 저작 경쟁 歷史人物 소설의 출간 붐, 冥想 書籍과 처세술 서적의 붐, 非專業 文筆家들의 책 출간 현상 등으로 요약된다.

책 읽는 층도 대학생 중심에서 30, 40대 층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낼 수 있고 또 共感만 얻으면 잘 팔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脫권위주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제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잡으면서 국제 관계 서적, 경제 서적 등이 베스트셀러로 등장하고 있다. 歷史人物 소설 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도 있지만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측면도 있어서 현실 정치에 대한 좌절감을 반영하고 있다.

90년대 초반을 넘어서 중반으로 향하는 시점에서 우리나라 讀書界는 현격한 變化 樣相을 보이고 있다. 80년대는 보기 힘들던 밀리언셀러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베스트셀러, 화제의 책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책의 수도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많아졌다. 해외의 最新書들도 속속 번역되어 부지런하기만 하면 서울에 앉아서도 뉴욕, 런던, 파리의 최신 서적 동향과 知識 社會의 주요한 변화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발간 6 개월 내 인구의 1%만큼의 책이 팔릴 경우 베스트셀러라고 이름 붙인다. 이 기준에 따르면 美國에서는 2백만 부, 日本에서는 1백만 부, 韓國에서는 40만 부가 팔려야 베스트셀러라는 이름이

붙여지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發賣 6 개월 내에 10만 부가 팔리면 베스트셀러라고 부른다. 베스트셀러가 좋은 책의 대명사는 아니지만 同時代人들의 意識과 時流를 가장 잘 반영한 것이고 보면 90년대 한국 사회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는 데 있어 베스트셀러만큼이나 유용한 자료는 없을 것이다.

90년대의 베스트셀러.....

80년대 10 년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랑을 받은 책들은 국내 도서로서는 김홍신의 「인간시장」, 황석영의 「장길산」, 정비석의 「소설 손자병법」, 김정빈의 「丹」, 서정운의 「홀로서기」, 김우중의 「세계는 넓

고 할일은 많다」와, 국외 도서로는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백년간의 고독」, 윌리엄 골딩의 「파리대왕」,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에리히 케스트너의 「마주보기」, 바바하리다스의 「성자가 된 청소부」 등 이다.

이들 80년대의 책들은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점차 시들해졌으나 89년에 발간된 大宇 그룹 회장 김우중의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는 90년대 접어들어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 全國民의 必讀書로까지 인식되기 시작했고 대기업 총수들의 저작 출간붐을 부채질했다. 90년 외국 도서로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필립 체스터빌드의 「내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로서 처세술과 인생 교훈을 가르쳐주는 실용 도서가 90년대 독서계를 지배할 것이란 예측을 가능케 한 슈퍼 베스트셀러였다.

91년에는 이은성의 「소설 동의보감」과 오쇼 라즈니쉬의 「배꼽」이 빅히트를 쳤고 버지니아 울프의 「세월」과 앤 타일러의 「종이시계」가 여성팬들을 사로잡으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인도 명사가 라즈니쉬의 인생론을 짚막한 寓話 形式으로 만든 「배꼽」은 「인스턴트화한 독서 풍토에 영합한 책」이라는 비난과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삶의 방법을 제시하며 위안을 준 책」이라는 相反된 評을 받으며 1백만 부 이상 팔려나갔다.

92년에는 럭키금성 그룹의 구자경 회장의 「오직 이 길밖에 없다」가 가장 많이 팔렸다. 지난 20여 년 간 럭키금성을 이끌며 체계화한 經營 哲學을 담은 이 책은 92년초 발간된 후 꾸준히 인기를 끌었다. 92년 소설계의 베스트셀러는 이재운의 「소설 토정비결」, 황인정의 「소설 목민심서」 등 歷史人物 소설이었다. 91년이 外國 作家의 해였다면 92년은 無名 作家의 歷史 小說이 베스트셀러 시장을 주도한 셈이다.

90년대 話題의 책과 베스트셀러

理念 圖書의 退潮와 經濟 및 未來學 圖書의 浮上

80년대 말 동유럽 공산권이 붕괴하고 인류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소련이 해체됨에 따라 마르크스주의 관련 및 社會主義圈 관련 도서 시장이 급격히 냉각했

다. 마르크스주의 서적이 빠져나간 공간을 메운 책들은 「역사 다시보기」 책들이다. 역대 사상가들의 고전이 리바이벌되고 유시민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 네루의 「세계사 편력」 등 歷史 書籍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이다.

90년대 들어 대학생 및 셀러리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품목은 90년대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및 세계 경제의 변화를 밝힌 時事 書籍과 經濟書, 그리고 엘빈 토플러와 J. 나이스비트, 피터 드러커 등의 未來學 書籍들이다. 株式 및 不動產 投資 등 財테크에 관련된 책들도 90년대 들어 인기 도서로 등장했다.

80년대의 이들 책들은 理念 도서 열풍에 밀려 企業人 및 職場人 등 특수층의 책이라는 생각이 짙었지만 90년대 들어서면서 현대인이면 어느 정도 國際 및 經濟 變化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작년 한 해 동안 학계 및 언론, 기업에 화제를 뿌렸던 책은 이면우의 「W이론을 만들자」. 한국의 문화 풍토에 맞는 產業 發展 戰略과 企業 經營 哲學을 만들자는 주장을 담은 책이다. 최근의 경제 불황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위기 의식 덕분에 베스트셀러가 된 이 책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장으로 씌어져 있어 더욱 인기를 끌었다. 발매 두 달만에 10만 권이 넘어섰고 작년 말까지 총 16만 부가 팔려나간 것으로 집계되었다. 학생 운동 출신의 名文章家 유시민이 쓴 「부자의 경제학 빈민의 경제학」은 西歐의 주요 경제학자 10여 명의 사상을 통해 자본주의의 결함을 비판한 책으로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밀리언셀러의 등장

국내 밀리언셀러의 嚆矢는 김홍신의 「인간시장」이다. 81년 발간된 이래 폭발적 인기를 누렸고 작년 말까지 총 4백만 부가 팔려나갔다. 황석영의 「장길산」은 1976년 초판이 나온 이래 근 10여 년 간 총 판매 부수가 백만 부를 넘어섰다. 80년대 후반의 밀리언셀러는 조정래의 「태백산맥」, 정비석의 「소설 손자병법」, 박경리의 「토지」, 서정운의 시집 「홀로서기」 등 이다.

그러나 80년대에는 밀리언셀러의 탄생이 그야말로 희귀한 사건이었지만 90년대에 들어서서는 히트했다 하면 백만 부가 쉽게 넘어설 정도로 독서 시장이 팽창했다. 김우중의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는 89년 초판이 발간된 이후 4개월만에 백만 부를 돌파해 한국 출판 사상 최단 기간에 밀리언셀러가 된 책이다. 이후 이은성의 「소설 동의보감」 라즈니쉬의 「배꼽」 황인경의 「소설 목민심서」, 이재운의 「소설 토정비결」 등이 가볍게 밀리언셀러가 되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밀리언셀러의 등장을 「한국이 先進國型 文化 패턴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입증하는 현상」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밀리언셀러의 등장은 책 읽는 층이 대학생 중심에서 30, 40대 층으로 확산된 점과 70, 80년대에 비해 우리 사회의 경제력이 향상된 점에 힘입은 바 크다.

世界 同時 베스트셀러 현상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세계 각국 간의 교류가 확산되면서 英美의 화제의 책, 인기 작가들의 책이 동시에 출간,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92년 전세계를 떠들석하게 만든 프란시스 후쿠야마의 「歷史의 終末」은 우리나라에도 번역, 광범히 읽혔고 앨빈 토플러, 폴 케네디, 피터 드러커의 최신 저작은 世界 各國과 거의 동시에 발간될 정도다. 토플러의 「權力移動」은 1992년 번역되어 지식층을 비롯해 직장인들에게 가장 많이 읽힌 책이다. 레스터 서로의 「헤드 투 헤드」(한국 번역명 「세계경제전쟁」)도 작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의 愛讀書로 알려진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世界 各國에서 번역되었다. 앤 타일러와 시드니 셸던, 마이클 크라이튼, 로자문데 필처, 밀란 쿤데라, 무라카미 하루키 등 世界 各國에서 旋風을 일으키는 작가의 작품이 우리나라에서도 동시에 話題를 일으키는 것은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文化的 嗜好나 樣式도 점점 통일되어 간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大企業 總帥들의 著作 競争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이 펴낸 「세계는 넓고 할일은

많다」가 讀書界의 열띤 반응을 받아 정주영 前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럭키금성그룹 구자경 회장의 「오직 이 길밖에 없다」, 선경그룹 최종현 회장의 「挑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코오롱그룹 이동찬 회장의 「별기보다는 쓰기가 살기보다는 죽기가」도 잇따라 발간되어 독서계의 대기업 총수들의 著書 戰爭이 불붙었다.

이들 책들은 발간 직후 10만 부를 가볍게 뛰어넘어 모두 베스트셀러 대열에 들었다. 이 책들의 판매 부수는 각 그룹의 매출 경쟁만큼이나 치열한 자존심 경쟁과 연관된 문제여서 각 그룹 직원들이 발벗고 구매에 나선 것이 베스트셀러의 요인이 되었지만 大企業 創業主들의 經驗과 智慧가 담긴 책이라는 점도 일반 독자들의 관심을 끈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김우중의 「세계는…」은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10여 개국에 번역 출간될 정도로 한국 기업인의 代表的 著書가 되었다.

歷史人物 小說의 출간 붐

이은성의 「소설 동의보감」이 예상 외의 히트를 치면서 불기 시작한 歷史人物 소설은 이후 이재운의 「소설 토정비결」, 황인경의 「소설 목민심서」, 이문구의 「매월당 김시습」이 발간 즉시 베스트셀러 대열에 끼이면서 가속화했다. 이후 「소설 대동여지도」(강학태), 「소설 한명회」(신봉승), 「소설 김옥균」(박태원), 「소설 공자」(김진욱), 「소설 강태공」(김택원) 등이 잇따라 출간되었고 이미 오래 전에 나왔던 「도산 안창호」(이광수)나 「소설 마의 태자」(이광수), 「소설 연산군」(정비석) 등이 再出刊되는 현상도 눈에 띈다.

역사 소설의 붐에 대해 「사회주의권 붕괴후 리얼리즘 문학이 독자들에게 대한 영향력을 급속히 상실하면서 서부터 歷史 小說은 독자들의 지적 공백을 해소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肯定的으로 평가하는 이도 있지만 歷史人物 소설의 붐에 대한 문화계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否定的이다. 文學性보다는 歷史的 素材와 興味性이 중시되는 역사소설은 아무래도 치열한 역사 의식의 所産이라기보다는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문학 평론가 김명인씨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現實政治에 대한 좌절 속에서 형성된 90년대 특유의 敗北主義的 문화 현상」이라고 단정지었다.

冥想 書籍과 處世術 書籍의 붐

冥想 書籍은 크리스나무르티의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가 80년대 초반 히트를 치면서 서서히 부상하기 시작했지만 밀리언셀러로 등장하면서 冥想 書籍 붐을 일으킨 것은 라즈니쉬의 「배꼽」이다. 1991년 발간된 후 92년 말까지 2백 30만 부가 팔려나갔다. 17세기 스페인의 제수이트회 수도사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명상집 「세상을 보는 지혜」는 작년 미국에서도 인기를 끈 책이지만 우리나라 번역본은 19세기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그라시안을 발굴, 직접 번역한 것을 重譯한 것이다. 고대 로마 제국의 哲人 君主 아우렐리우스의 「冥想錄」을 떠올리게 하는 수준 높은 책이다. 이 밖에 박상준 편저의 「동냥그릇」, 로버트 집러의 「파라독스 이습우화」, 윤재근의 「학의 다리 길다 고 자르지 마라」 등이 인기를 끌고 있는 책들이다. 冥想 書籍의 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독서계의 거품 현상」, 「현실로부터의 逃避를 조장하는 有害書」라는 평도 없지 않지만 각박한 현대 생활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청량 음료와도 같은 책이라는 肯定的 評價도 있다.

90년대 들어 뚜렷해진 非專業 文筆家들의 책 출간 현상

80년대만 해도 책을 펴낸다는 것은 작가나 教授, 文學 評論家, 言論人 등 문필업 종사자들의 고유 기능으로 인식되었지만 90년대 초부터 非專業 文筆家, 無名 作家, 사회 각 분야의 專門人들의 글쓰기 작업이 활발해졌다. 기업 총수나 정치인, 언론인 등의 책 발간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방송인, 연예인, 무명 작가, 일반 회사원들까지 책을 펴내기 시작했고, 독자들도 저자의 학식이나 지명도에 관계없이 일단 재미 있고 독특하면 책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在獨 종이인형 작가 김영희가 펴낸 「아이를 잘 만드느 여자」, KAL기 폭파범 김현희의 「사랑을 느낄

때면 눈물을 흘립니다」, 귀순 용사 김용의 「머리 빠는 남자」, KBS 아나운서 이숙영의 「애첩기질 본처기질」, 정트리오를 키운 이원숙의 「너의 꿈을 펼쳐라」, 모델 이희재의 「아름다운 여자」 등은 독특한 生活 體驗을 책으로 엮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 무명 시인 서은영이 펴낸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욱더 마음 저리는 것은 작은 웃음이다」나 고은별의 「마지막이라는 말보다 더 슬픈 말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예반이란 미국의 한 평범한 회사원이 쓴 시집인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어」 등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출판사에서 異例인 사건으로 기록된다.

이런 현상은 「책쓰는 것은 곧 사회적 지위가 높고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만의 일」이라는 인식이 退色하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펴낼 수 있고 또 共感만 얻으면 잘 팔릴 수 있다는 인식이 擴散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사회가 多元化하면서 나타나는 脫權威主義의 端的인 현상이자 知識人 중심의 독서 문화가 점차 大衆化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국제 흐름 파악에 관심 증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0년대 들어 독서계의 가장 큰 변화는 大學街 및 知識人 社會를 휩쓸던 理念 圖書가 현격히 退潮하고 實用, 情報 圖書가 도서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기 시작한 점과 리얼리즘 계열 문학 작품보다는 歷史 小說, 推理 小說, 體驗 手記 등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외국의 베스트셀러와 화제의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동시 출간되는 현상이 加速化하는 점도 90년대를 특징짓는 요인이다. 국제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인식이 폭넓게 자리잡으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國際 關係 書籍, 經濟 書籍 등이 베스트셀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90년대 초반의 흐름은 90년대 전체, 나아가 21세기 독서계의 변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현상으로 注目되고 있다. ♣